

05

네팔

Nepal

희로애락의 연속이었던 나의 네팔 생존기

- › 활동기관 : 네팔 국가정보기술센터
- › 자문분야 : ICT
- › 자문내용 : IT Optimization
- › 성 명 : 윤 병 훈



카트만두 정착하기

2104년 7월 25일, 드디어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했다. 네팔 관광의 비수기인 7월이기에 따로 숙소 예약은 하지 않았다. 인터넷을 통하여 눈여겨 봐 둔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가 저렴한 조건으로 임시 숙소를 해결하였는데, 게스트하우스에 누워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른다. 수원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라는 사실을 겪은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어찌랴. 이미 물은 엇질러졌는 걸.

KOICA 네팔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 후 네팔 국가정보기술센터(NITC:National Information Technical Center)에 출근하기 시작할 때까지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야 했다. 어떻게 해서든 잠을 내 거주할 집을 찾은 게 벌써 한 달. 다행히 카트만두 북쪽 지역인 Naxal에서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다.

네팔은 수도가 없어 대부분의 가정이 지하수를 뽑아 쓰거나 차량으로 공급하는 물을 받아서 사용한다. 때문에 집을 구할 때 무엇보다도 물 공급이 잘되는지? 수질은 어떤지? 꼭 따져 보아야 한다. 처음에 묵었던 게스트하우스는 물 색깔이 황토색이고 냄새도 났다. 아마 한 달 정도 더 머물렀다면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NIPA 소속으로 네팔에 파견된 첫 자문관이다 보니 도움을 받을 만한 길이 없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면서 이곳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신중하게 집을 구하려 했지만 시간을 내기가 만만치 않았다. KOICA 사무소에서 차량을 제공해 주고 부동산 중개 업소도 소개해 줘 그나마 용이하게 집을 구한 것이 다행이었다. 그러나 입주로 끝난 게 아니었다. 비록 Full Furnished Apartment라고는 하지만 입주 뒤로 할 일도 준비할 것도 많았다.

Yes 또는 No, 오른손 또는 왼손

네팔에서 생활하며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를 경험했는데, 아직도 헷갈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Yes와 No의 차이이다. 네팔인은 지문에 대답이 Yes일 때 고개를 가로젓는다. 반면 No일 때에는 고개를 위아래로 끄떡인다.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인 셈이다. 일상생활에서 수도 없이 만나는 상황인데도 매번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도대체 이 사람의 대답이 무슨 의미일까?”, “Yes or No?” 우리와 반대라는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끊임없이 헷갈린다. 살살 웃으면서 고개를 가로젓는 것을 보면서 Yes라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네팔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수저를 사용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먹는데 이 또한 매우 생소한 모습이었다. 물론 이야기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매번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게 위생상 거북하기만 했다. 그런데 네팔에서 더러운 손은 따로 있다. 손으로 음식을 먹는 나라는 왼손과 오른손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는데, 음식을 먹을 때 또는 물건을 주고받을 때에는 꼭 오른손을 사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왼손은 오른손에 비하여 더러운 손이라는 것이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참 별난 사람들이다’는 생각을 했다. 같은 손인데 왼손은 더럽고 오른손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다. 그러나 현지에서 보니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 네팔 사람들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일화 한 가지. 네팔은 2013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GDP) 한화로 약 70만 원



정도로 매우 어렵게 사는 나라이다. 반면 화장실 문화는 GDP 대비 무척 발달했는데, 하얀 변기에(좌변기가 아님) 물을 흘릴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예전 우리나라의 재래식 화장실과는 비교가 안 되게 깨끗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편 내가 근무한 사무실에는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화장지가 구비되어 있는 칸이 없다. 어렵게 화장지를 얻어 해결을 하고 손을 물에 씻고 걸려 있는 수건에 닦았다. 난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집에서 화장지를 가져다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화장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조그만 수도꼭지. 난 그것이 만나푸르나 트레킹을 할 때 보았던 시골 변기의 연장선상으로 변기를 깨끗하게 닦으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네팔 사람들은 화장지가 없이 용무를 마친 뒤에 왼손으로 항문을 닦는단다. 그리고 작은 수도꼭지는 다음 단계에 이용되는…. 그야말로 왼손은 더러운 손, 오른손은 깨끗한 손이었던 것이었다. 과거 우리가 화장지 대신 기름 먹은 신문지 등을 사용하다 치질로 고생을 한 것에 비하면 얼마나 현명한 방법인가. 당연히 네팔에는 치질 환자도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왼손을 사용할 수 있을까?

‘케이! 께 거르네?’

네팔에서 생활하다가 어이없는 일에 봉착하면 “Here is Nepal”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한다고 한다. “여기는 네팔인데 이 정도야 감수해야지”라는 뜻이라고나 할까? 한번은 철썩같이 해준다는 시간에 세탁소에 옷을 찾으러 갔는데 24시간 뒤에 다시 오란다. 이유는 바빠서 못했단다. 아무런 미안한 기색이 없다. 그럴 때면 속으로 말한다. “Here is Nepal”.

1인당 국민 소득이 700 달러 정도로서 전 국민의 30%가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매우 빈곤한 나라.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는 전 세계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 지금 내가 힘든 것은 전생에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이니 불평이나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어진 삶의 조건을 -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빈곤, 낮은 카스트 계급, 배고픔, 아픔, 추위 등 - 받아들이고 열심히 기도하며 살면 열심히 다음 세상에서는 좋은 곳에서 잘 살 수 있게 태어날 것이라 생각하는 운명론적 종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팔인들이다.

실제로 네팔에서는 언성을 높여 다투는 모습을 좀처럼 보기 힘들다. 다른 사람을 돕는 걸 즐기며 마음을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은 순박한 네팔인들을 보며 사람 사이의 정이란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다만 그로 인해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 네팔인들은 다른 사람의 질문을 받으면 성심성의껏 대답을 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을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간혹 그 대답이 엉터리인 경우가 있다. 몰라도 미안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대답한다고나 할까? 한번은 현지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는데 모두들 “잘 먹었다”,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유를 물으니 오히려 식사를 대접하는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주었으니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절대 악의가 없다는 걸 아니 어찌겠는가. 또 한 번 속으로 외칠 수밖에. “Here is Nepal”.

우기인 몬순이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면 안그래도 부족한 물과 전기가 최악으로 치닫는 기간이 된다. 내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은 다행히 지하 130m에 물을 뽑아 사용해 물 걱정은 없었다. 터벨의 비싼 게스트하우스에서도 수도를 틀면 비릿한 냄새가 흠탕물이었는데 그나마 나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전기였다. 네팔에 와서 처음 들어본 ‘Load Shedding’. 사전을 찾아보니 ‘전력 평균 분배’라고 되어 있었다. 카트만두의 경우 7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마다 전기를 평균적으로 공급하는 실정이었다. 내가 사는 6지역의 경우 하루 9시간 정도 전기가 끊기는데, 전기에는 그 시간이 하루 18시간에 이르기도 했다. 그나마 나라의 수도이기에 가장 양호한 상태가 이 정도였다.

나는 인버터를 이용해 배터리의 전기를 직류에서 교류로 전환하여 Load Shedding 시간에 사용했는데 용량에 한계가 있어 60와트 전기요와 LED등의 사용과 휴대폰 및 노트북 충전 정도가 가능했다. 사정이 이렇고 보니 냉장고, 진공청소기, 전기밥솥, 전기 히터, 헤어드라이어 등은 좀처럼 사용하기가 힘들었다. 특히 냉장고는 믿을 수가 없었다. 하루

에 8~9시간씩 전기가 끊어지니 안에 있는 물건들의 상태를 장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네팔에는 근본적으로 난방 시설이라는 개념이 없다. 10월부터 밤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데 보온을 위해서라도 창문을 비닐로 막는 게 고작이다. 그나마 프로판 가스를 이용한 순간온수기를 사용하는 게 겨울에 앞선 최상의 준비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싱크대에는 온수가 안 나오니 손을 호호 불어 가며 찬물로 설거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월동 준비를 위해 현지에서 겨울용 침낭 하나를 구매했다. 들어가 보니 아랫목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던 어린 시절이 떠오를 만큼 따뜻하고 좋았다. 매일 밤 안나푸르나 골짜기에서 잠자는 기분으로 살아야지. 21세기에 살면서 물과 전기를 비롯해 모든 물자가 이렇게까지 귀한 곳에서 살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하지만 네팔에서 보니 ‘못 써서’가 아니라 ‘안 써서’ 물건을 버리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졌다. 한국에서 버려지는 물건들만 모아도 이곳에서는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네팔 인구보다 더 많다는 신이시여,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착한 네팔 국민들을 도와 주셔서 하루 빨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유일하게 영어로 전례를 하는 Assumption Church 성당에서 간구하는 개인적인 기도문이다. 얼마 안 된 네팔 생활이지만 삶의 모습이 어느덧 네팔 사람들을 닮아 가고 있는 것 같으니. ‘케이! 께 거르네(어쩔 수 없잖아)’ 모든 것을 운명과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Nepali can do it!’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지는 날을 기다릴 수밖에.



티하르와 데오시

매년 가을이면 네팔에서 다샤인 축제(DaShain Festival) 다음으로 큰 축제라는 티하르 축제(Tihar Festival)가 열린다. 티하르 축제는 부의 여신 락쉬미(Laxmi)를 숭배하는 축제로, 전기 사정이 열악한 이곳에서도 이 날만은 밤에 불을 환히 밝히고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이웃들과 즐긴다고 하여 ‘빛의 축제’라고도 불린다.



축제 이틀 전부터 하루씩 Crow-Dog-Cow, 즉 첫날은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고, 다음 날은 개에게 먹이를 주고 꽃목걸이와 띠까를 이마에 붙여 준다. 세 번째 날은 부의 여신인 락쉬미의 화신

인 소를 숭배하는데, 이 날 밤에는 락쉬미가 집으로 들어오기 좋도록 모든 집에서 대문부터 불을 밝힌다. 세 번째 날은 네팔의 부족들 중 네와르(Newar)족의 신년이다. 네팔은 독자적인 네팔력을 사용하는데 서기력 2014년이 네팔력으로는 2071년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서기력보다 57년이 앞서가는 셈이다. 또한 4월 14일이 네팔의 공식적인 새해로서 공휴일이다. 축제 마지막 날은 여자 형제들이 남자 형제들의 이마에 티카를 붙여 주고, 남자 형제들은 여자 형제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으로 축제가 마무리된다.

티하르 축제 기간 중에 여자들만이 모여 다른 집을 방문해 춤추고 음식을 즐기는 것을 ‘데오시(Dehosi)’라고 한다. 물론 음료수 한 잔뿐인 집들도 많지만 간혹 경제적 여력이 되는 집에서는 데오시 준비에 많은 신경을 쓴다. 내가 사는 집주인도 데오시를 위해 앰프를 설치하고 위스키, 와인 및 맥주까지 종류별로 준비했는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마침내 시작된 데오시. 노래와 춤으로 부를 빌어 주고, 음식을 즐기는 분위기가 과연 축

제답다. 마지막에는 약간의 과일과 돈을 내놓는데 이 돈을 모아 나중에 여자들끼리 피크닉을 간다고 한다. 네팔 여자들이 이렇게 흥이 많은 줄 처음 알았다. 사회 전체 분위기가 가부장적이어서 몰랐을 뿐 명석을 깔아 주면 정말 신나게 잘 노는 사람들이었다.

네팔 여행 - 치트완 국립 공원

2014 SAARC Summit이 열리는 11월 26일과 27일이 임시 공휴일이 되었다. 간만에 찾아온 여유에 나는 유네스코 자연 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치트완 국립 공원(Chitwan National Park)을 다녀왔다.

네팔은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는 히말라야 때문에 나라 전체가 고지대라고 경우가 많다. 하지만 치트완 국립 공원은 해발 50~200m 정도로 아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다. 공원 내에는 인도코뿔소, 인도호랑이, 표범, 늑대 등 멸종 위기의 동물들도 다수 서식하고 있었다. 조류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많은 500여 종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습도가 높아서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데 코끼리 타고 즐기는 정글 사파리, 래프팅, 카누, 조류 관찰 등을 즐길 수 있다.

집에서부터의 거리는 약 170km였지만,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인해 자동차로는 5시간 가까이 소요되었다. 그래도 야외로 나오니 기분이 상쾌하고 곳곳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풍경은 피곤할 틈을 주지 않았다.

첫날 아침은 코끼리를 타고 정글 사파리에 나섰다. 나와 조를 이룬 거대한 코끼리는 나이가 45살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30~40kg





정도를 먹는다고 했다. 코끼리는 못 가는 데가 없고, 대단히 영리해 위험할 수 있는 여정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주었다. 그러나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던가. 인도호랑이, 치타, 악어 등 수많은 야생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곳임에도 이날 내가 만난 동물은 코뿔소가 유일했다.

둘째 날 아침에는 지프를 이용했다. 정글 안은 햇빛이 잘 비추지 않아 다른 곳에 비해 기온이 매우 낮았다. 이동 수단이 바뀌고 기동력이 높아진 만큼 전날보다는 더 많은 동물 친구들을 만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셋째 날, 아침 일찍 숙소 주변을 돌며 농촌 마을에 들어섰는데 곳곳에 낯익은 모습이 있어 깜짝 놀랐다. 우리와 재질만 다르지 개념은 똑같은 소 부리막, 고기 잡는 데 사용하는 반도, 우마차, 쌀에 있는 이물질을 고르는 작업, 펌프로 물을 퍼 올리는 모습, 강에서 목욕하는 모습 등 예전에 우리가 살던 모습과 유사한 점이 어찌나 많은지...

네팔 여행 - 창구 나라얀

오늘은 내가 고문으로 있는 네팔 한인 산악회의 번개 산행이 있는 날이다. 해발 2,000m 인 나가르코트(Nagarkot)에서 창구 나라얀(Changu Narayan)까지 약 13km 정도의 하



행 트레킹. 쉽지 않은 여정이 예상되는 만큼 벌써 며칠 전부터 긴장과 설렘이 컸다.

자동차로 1시간 30분 정도 달려 도착한 나가르코트에서 바라본 히말라야는 장관이었다. Country Villa 테라스에서 차 한 잔 나누며 잠깐 휴식을 취한 우리는 본격적으로 트레킹을 시작했다. 아름다운 경치가 마음을 사로잡았고, 스쳐 지나가는 시골 풍경, 특히 무말랭이와 무청으로 우거지를 만드는 모습이 정겨움을 선사했다. 빨래를 하거나 제기를 차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에 다시 올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에게 줄 군것질거리라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망이 좋은 곳에서 렉시 한잔과 함께하는 휴식도 그만이었다. 네팔 소주인 렉시는 쌀을 증류하여 만드는 일종의 소주로 도수가 대략 40~45도 정도이다. 렉시를 마시며 안주한 접시를 청했는데 총 가격이 우리 돈 3,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했다. 그 모습에서 다시

한 번 네팔 사람들의 순박함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에게 5,000원이라고 말해도 그게 비싼 가격이라는 점을 우리는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양심껏 평소에 가격만 받는다. 이런 점이 내가 네팔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일 터.

산행 중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레스트의 원래 이름은 에베레스트가 아니란다. 네팔에서는 에베레스트(8,848m)를 사가르마타(Sagarmatha)라고 부르고, 티베트에서는 초몰룽마(Chomolungma)라고 부르는데, 둘 다 ‘대지의 여신’ 혹은 ‘세계의 여신’이라고 한다. ‘봉우리 15’로 불리던 봉우리에 현지 지명에 따라 이름을 붙이려고 했으나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당시 인도 측량국 장관이었던 G. Everest의 이름을 따서 에베레스트라고 명명된 것이었다.

네팔 생활의 이모저모

2014년 2월 19일. 우리로 치면 음력설이 되었다. 비록 객지에서 맞는 명절이었지만 떡국, 메밀전, 닭 무침, 호박전, 숙주나물 등 KOICA 단원들과 다양한 음식을 함께 먹으며 외롭지 않은 설을 보낼 수 있었다.

어느새 봄이 오면서 겨우내 두꺼운 옷에 숨겨져 있던 몸에 대한 걱정이 시작되었다. 건



강을 위해서라도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했다. 한때 하루 800kcal만 섭취하며 혹독한 다이어트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는 무리였다. 음식을 적게 먹는 다이어트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단시간에 급하게 이뤄졌을 때 이야기이다. 장기간의 계획

을 세워 음식 섭취를 점점 줄이면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 물론 처음 3일은 참을 수 없이 괴롭다. 음식 사진만 봐도 참기 힘든 식욕이 치밀어 오른다. 그러나 그 고비를 넘기고 보름 정도만 실천하면 위장 자체가 줄어들어 배고프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게 된다. 오히려 일정량을 넘겨 먹으면 속이 거북해진다.

네팔은 넓은 면적만큼 다양한 기후가 공존하는 나라이다.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온은 떨어지고 강수량은 늘어난다. 티베트 고원의 기온은 드물게 영하권을 기록하기도 하지만 열대성 기후인 저지대에서는 연중 온화한 날씨를 즐길 수 있다. 네팔도 우리나라처럼 뚜렷한 4계절이 존재한다. 이 중 특히 좋은 날씨는 3월에서 4월에 이르는 봄과 10월에서 11월에 이르는 가을로, 이때에는 가끔 비가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화창한 날씨와 따뜻한 기온이 계속되어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된다.

11월부터 3월까지의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산에는 눈이 쌓이는데 반해 카트만두나 포카라 지역에는 눈이 거의 내리지 않는다. 5월과 6월은 1년 중 가장 덥고 습한 시기로, 5월에서 9월까지 계속되는 몬순 장마는 네팔 전역을 진흙으로 뒤덮어 버리기도 한다. 카트만두의 경우 1월 평균 최저 온도가 영상 2~3도로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지만 난방 시스템이 없고 대부분의 주택들이 단열 처리가 부실하여 뿔속까지 시린 한기를 느끼게 된다. 밤에는 수면 방지, 모자 및 패딩 점퍼를 입고 잘 수밖에.



‘색의 축제’라고도 불리는 홀리 축제(Holi Festival)는 겨울의 끝과 봄의 시작을 반기는 축제이다. 사람들은 축제 기간 동안 밝은 색의 분말 가루를 던지고 물을 뿌리는데 이렇게 하면 병이 예방된다고 믿는단다.

카트만두 광장은 홀리 축제를 즐기기 위한 인파로 인산인해였다. 이곳이 네팔인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나 역시 수많은 인파에 밀려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서 손을 쳐들어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그러는 중에도 색 가루 공격을 받아 온몸은 물론 사진기까지 색 가루 범벅이 되었다. 그래도 무언가에 몰입하여 하루 즐기는 모습에서 네팔 사람들의 밝은 국민성을 본 것 같아 기분이 좋은 하루였다.

네팔은 바다가 없어 신선한 생선은 구경할 수도 없고 힌두교 때문에 소고기도 안 먹는다. 없다고 하니 더 생각이 나는 게 인지상정. 네팔은 전통적 튀기는 조리법이 발달해 음식도 단순하다. 주로 달걀도 렌틸콩 수프, 밥, 2~3가지의 야채 볶음이 주를 이루는 데 그 야말로 네팔의 백반이라고 할 만하다. 사정이 이러니 가끔 얼큰한 콩나물국이 생각나곤 했다.

생선이 없는 대신에 네팔에는 다양한 콩이 있다. 가수 이효리가 자주 먹는다고 하여 유명해진 렌틸콩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으며, 콩나물 기르는데 사용하는 쥐눈이 콩, 콩국수 만드는데 사용하는 대두, 나 이 든 사람들 심혈관에 좋다고 하는 강낭콩 등 정말로 많은 종류의 콩이 있다. 가격 또한 매우 저렴하다. 특히 이곳의 녹두는 품질이 좋아 빈대떡을 만들면 어린 시절 기억하던 맛을 느낄 수 있다.



네팔 음식은 특징은 기름지고 달고 짜다는 것이다. 단기간이라면 매식을 할 수도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매식을 할 수는 없는 노릇.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데 맛과 영양을 생각해 쌀은 현미, 흑미, 찹쌀을 섞은 쌀과 혼합 콩을 반반 섞어 사용했다. 콩나물, 숙주는 직접 길러 콩국수나 빈대떡을 직접 만들어 먹었다. 궁하면 통한다고 점점 요리사가 되어 가는 느낌. 하기가 요즘 대세는 요리 잘 하는 남자라고 하지 않던가?

생사의 기로에 서다

2015년 4월 25일 오전 11시 50분경, 집 정원에 있었는데 갑자기 굉음과 함께 땅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건물과 큰 나무들이 흔들리는데 순간적으로 대형 지진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야말로 경천동지(驚天動地). 아마 태초에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이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스치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더욱이 며칠 전 집사람이 네팔에 온 상황에서 집사람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었다.

현지에 파견된 후 네팔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하는 일을 자문하다 보니 네팔의 재해에 대해 다양한 공부를 해 왔다. 그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것은 지진이었다. 네팔은 1,200년대부터 대략 80년 주기로 대형 지진이 발생했는데 마지막 대형 지진이 1934년에 발생하였으니 2014~2016년이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더욱이 과거 10년간의 데이터를 감안할 때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매년 11~37회 정도 발생함에 따라 대형 지진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카트만두 시내에서 81 km 떨어진 고르카 지역 지하 11km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지진은 네팔 전역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다. 밤을 꼬박 새고 다음 날 아침에 KOICA 사무실로 갔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지만 모두 망연자실한 상태. 더욱이 조만간 진도 9.0의 강진이 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분위기는 더욱 암울해졌다. 전날 7.8 규모의 지진도 그렇게 무서웠는데 9.0의 파괴력은 상상하기도 싫었다. 진도 9.0은 7.8의 64배로 모든 건

물이 붕괴되고, 엄청난 수의 사람이 죽게 될 것임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비록 그것이 뜬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피해야 했다. 먼저 지역 지리를 잘 아는 사람에게 물으니 약 40분 거리에 넓은 개활지가 있다고 했다. 그때 시간이 정오 정도. 소문으로는 오후 1시경에 지진이 발생할 거라 했으니 조금도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서둘러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개활지로 이동했고, 조금이나마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사람들을 엮드리게 했다. 지진의 여파로 우리 쪽으로 날아올 지도 모르는 파편을 관찰하고 있는데 서서히 땅이 흔들리면서 저 멀리 집 옥상의 물탱크들이 부서지는 것이 보였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날 지진은 규모 6.9 수준.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2번의 큰 지진과 이어진 여진을 겪으며 취약해졌을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개활지에서 이틀 밤을 지냈는데 설상가상으로 둘째 날 밤에는 폭우까지 쏟아졌다. 다행히 집사람과 나는 찰과상만 입은 상태지만 공포감에 휩싸인 상태에서 비까지 맞았더니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졌다.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던 대한항공 정기편이 우여곡절 끝에 인천 국제공항을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쓸어 내렸다. 집사람을 태운 비행기가 공항에서 이륙한 것을 보니 안도감이 들면서 몸이 무너져 내렸다. 나 역시 서둘러 귀국을 하려 했지만 비행기 표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다행히 NIPA에서 비행기 표를 구해 주었고 지진 발생 4일 만에 귀국을 할 수 있었다.

한국에 머물던 내가 다시 카트만두로 복귀한 것은 그로부터 1달여가 지나서였다. 현지는 여전히 지진이 이어지고 있었다. 약 9,000명이 사망하고 집 50만 채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5개월 동안 규모 4.0 이상의 여진만 396차례나 발생하였는데 가끔은 흔들림이 심해서 가슴이 철렁하기도 했다. 지진은 내 생활에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 유사시 들고 나갈 생존 배낭을 방문 앞에 놓아두기 시작했고, 잠을 잘 때에도 거실에는 불을 켜 놓았다. 해가 진 뒤에는 가능하면 집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며, 샤워 시간도 예전의 반 정도로 줄였다. 아무리 급해도 발가벗고 뛰어나갈 수는 없지 않은가?

에필로그

네팔에서 생활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혼자만의 생활이라 어려움도 많았지만 일하고 있는 수원 기관, KOICA 네팔 사무소, 한국 대사관, 대학 및 교민 사회 덕분에 무난히 활동을 마무리하고 있다. 결국 대인 관계를 어떻게 맺고 유지하느냐는 것이 성공적인 자문관 생활을 위한 핵심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언어 능력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아주 조금이라도 현지어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 심지어 택시, 상점 등을 이용할 때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2015년 9월 20일, 왕정 폐지 후 7년 만에 처음으로 헌법이 제정되었는데 이해득실 관계로 인해 네팔이 들쭉였다. 택시 파업과 번다(모든 차량과 상점이 문을 닫음)가 이어져 40명 이상이 사망하기까지...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인도가 국경선을 봉쇄하는 바람에 휘발유, 가스 등 모든 물류 수송이 중단되어 국제선 항공기의 경우 돌아올 기름을 실어야 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국내선은 전면적인 운항 중지에 돌입했고, 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식당은 줄지어 문을 닫았다. 생필품 가격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21세기인 오늘날에도 바다가 없는 나라의 설움과 잘못된 국가 민족주의 등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일들이 연속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 자문관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강화가 요구되는 때인 것 같다.



네팔
윤병훈

-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학사
- 前 대한항공 근무
- 前 (주)한국 IBM 근무
- WFK NIPA Advisors – 네팔 국가정보기술원 파견